

유기동물 실태 조사



성기창 학생동물병원장

서론

고령화,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 증가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애완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며, 버려진 애완동물과 방견이 우리의 생활주변을 더럽히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 전염병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소비하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측면만으로 애완동물 사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애완동물이 주변 공동체의 생활을 방해한다거나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노력이 그 정도와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나라마다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개인적·사회적 피해억제를 넘어서 동물보호의 측면으로 제도들이 확대·개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유기동물처리에 대한 기본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장, 군수, 구청장등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기동물의 원래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고 후 1개월이 지나도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애호단체, 동물애호가, 학술연구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유기동물처리방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소로 이동하여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대부분 개인이 동물애호정신으로 사비를 털어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였고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관계로 선진국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 이후 정부는 시·군마다 지역의

동물병원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및 수용규모의 문제점이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는 동물보호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중성화 수술이나 불임수술 등을 실시한 후 재입양을 주선하고 있는데 입양률이 매우 낮으며,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서구처럼 안락사도 쉽게 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 보호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어리고 귀엽고 순종이거나 크기가 작고 말을 잘 듣는 애완동물을 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잡종이거나 나이가 들고 지저분해진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개를 생명체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식들이 유기동물 발생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만여 마리의 개가 유기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3년 466두, 2004년 1,560두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의 예상 발생 두수가 2,200여두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기동물 발생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사회가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과 유기동물 처리에 힘쓰고 있으나 체계적인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 시스템이 미흡하다.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유기동물의 문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과 연관된 문제이며 애견선진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스템적으로 그 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유기동물실태가 유기동물 해결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지역 3개소 중 1개소의 신고 유기동물

조사기간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

조사방법 월별 발생현황과 견종별 발생현황 및 유기동물의 운명실태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유기동물의 실태

최근 마스크의 영향으로 애견 산업과 애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유기동물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2004년 한해만 하여도 1,56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3년 466두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애견문화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월별, 성별 및 연령별 발생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otal(%)
발생 두수	14 (6.4)	15 (6.8)	20 (9.1)	13 (5.9)	22 (10)	19 (8.7)	24 (11)	24 (11)	28 (12.8)	22 (10)	10 (4.6)	8 (3.7)	219 (100)
성별(수)	13	10	11	10	10	15	18	10	15	13	7	4	136(62.1)
성별(암)	1	5	9	3	12	4	6	14	13	9	3	4	83(37.9)
6개월 미만	1	0	3	3	5	6	4	7	12	11	2	0	54(24.7)
6개월 이상	13	15	17	10	17	13	20	17	16	11	8	8	165(75.3)

유기동물의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유기동물 발생률이 높는데, 이는 추운 날씨보다는 유기동물들이 배회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두거나 운동을 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려 다니다가 집을 찾지 못하여 유기동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추운 계절에는 어린 유기동물들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신고가 잘 되지 않는 반면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비교적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유기동물 중 암컷 83두(37.9%)보다 수컷 136두(62.1%)이 많이 유기되는 것은 애완동물의 경우, 암컷에 비해 수컷이 배뇨습관의 교정이 되지 않았거나, 많이 짖으므로 발생될 수 있는 주변과의 문제, 성적욕구의 충족을 위한 배회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 중 6개월 미만의 어린동물 54두(24.7%)보다 6개월 이상의 유기동물 165두(75.3%)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애완동물이 어릴 때는 귀엽고 예쁘지만 나이가 들면서 행동학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기 되어진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하여 배뇨습관을 교정한다면 버려지거나 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의 증가 추세를 단순한 애견인구의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는 생명경시 풍조나 주인의 소양의식 부족, 자격미달, 주거 형태의 변화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컴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조른다고 해서 장난감을 사주듯이 동물을 선물하는 부모에게서 책임 있게 길러야 할 의무까지 자녀에게 교육시킬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거형태가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면서 마당에서 기르던 동물을 건강원으로 내다 팔거나 팔기 어려울 경우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사태 역시 동물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할 뿐,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기동물의 견종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otal
시쥬	3	4	6	3		4	4	5	4	2	2	1	38
요크셔테리어	1	1	2		3	1	5		2	1			16
슈нау즈	1	1	1	2	1	5	5	2			1		19
페키니즈	1	1			1		1	1					5
푸들						2		1		1			4
스파니엘			1	6	2		4		3	4	1		21
말티즈	2	1	1	1	2	1	3	4	6	1	2	1	25
미니핀	1												1
발바리	2	7	6		7	4	1	5	7	5	2	3	49
골든레트리버	1										1		2
말라뮤드	1			1									2
달마시언	1												1
포메라니언												1	1
퍼그			1										1
비글			1					1					2
진도			1		1	1		2				1	6
닥스훈드					1								1
허스키								1				1	2
제페니즈칭										1			1
삽살개											1		1
고양이					4	1	1	2	6	7			21
Total	14	15	20	13	22	19	24	24	28	22	10	8	219

동물보호소에 신고 된 동물은 개·고양이가 219마리이며 이 중에 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90.4% 198마리이며, 고양이는 9.6%인 21마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동물 중 개의 경우, 잡종견(일명 발바리)이 49마리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쥬가 38마리로 17.4%, 말티즈 25마리 11.4%, 스파니엘 21마리 9.6%, 슈нау즈 19마리 8.7%, 요크셔테리어 16마리 7.3% 순으로 이들 여섯 견종이 전체 219두 중 168두인 76.7%를 차지하였다.

잡종견이 많이 유기되는 이유는, 어릴 때는 잡종견이라도 귀여워서 순종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키우나,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커지거나, 순종지상주의에 빠지면서 키우기가 어려워지므로 유

기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쥬와 스파니엘의 경우는 행동학적 습성 즉 배변훈련이 힘들고 다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번식률이 또한 높은 관계로 유기되기 쉽다. 그리고 슈나우즈의 경우는 견종 특성상 많은 활동성을 보이고 많이 짚는 관계로 어릴 때의 사회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실내견으로 부적합하다.

유기동물의 운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otal(%)
주인 인계	2	0	2	1	0	0	0	1	1	1	1	0	9 (4.1)
입양	1	4	9	6	11	1	2	2	3	3	2	2	46 (21.0)
안락사	2	2	5	0	6	13	3	15	8	9	0	3	66 (30.1)
자연사	9	9	4	6	5	5	19	6	16	9	7	3	98 (44.8)
Total	14	15	20	13	22	19	24	24	28	22	10	8	219 (100)

2005년 서울시 25개구의 유기동물 운명을 보면, 유기동물의 평균 주인 인계율 0.3%인 반면 본 조사에서는 4.1%로 서울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동물병원 카페나 동물병원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주인 찾기의 결과로 서울시의 주인 인계율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양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평균 입양률 0.3%보다 훨씬 높은 21%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을 내원하는 애견동호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과 불임수술을 시술하여 입양을 권장하거나, 장모종의 경우는 애견미용을 실시하여 예쁘게 단장하고 질병 검진 후에 사납지 않은 견종은 애견미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계나 입양 외의 안락사 66두(30.1%)는 다시 희생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당했거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동물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유기동물 중 자연사가 98두(44.8%)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기동물의 항체 보유는 가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기르는 애완견에 비하여 항체 보유율이 낮아 전염병에 노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병 감염율이 높고 성격 또한 난폭하여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집단사육에서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

유기동물들의 대부분은 사람과 더불어 살다 버림받은 동물들로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사랑을 잃은 충격과 오염된 환경, 홀로 된 스트레스로 인해 곧바로 병에 걸리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다 차에 치여 죽거나 사람의 발에 걷어차이는 혐오 동물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유기동물의 운명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먹이를 구하다 잡혀 건강원 으로 팔려가 두들겨 맞아 죽거나 각종 전염병을 발생시켜 공중위생학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런 유기동물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채우고 극심한 고통 속에 인간을 원망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불임수술과 재입양에 실패한 유기동물에게 안락사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물은 어떻게 죽느냐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동물답게 살지 못할 때 잔인한 것이다. 잔인한 운명을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슬픔을 거두는 우리의 노력이 진정한 동물보호라 믿고 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관리대책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물 관리 방법의 이해가 필요하며, 불임수술 의무화 등 무분별한 번식문화를 지양하고, 애완동물 보유신고제(마이크로칩)로 관리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 장치를 마련하여 분실 또는 고의 유기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 판매사업 허가제 및 판매 규정을 따로 두어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여,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강력한 동물보호법 적용과 합리적인 유기동물방지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데리고 놀다가 버려도 되는 장난감이 아니다. 세심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자세와 책임감을 갖추고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것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준비 없이 동물을 맞이하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고 반려동물 또한 불행한 운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